

##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요3장16절-18절)

오늘날 교회 안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공동체이다.

세상이 비참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살육의 문제, 다툼과 갈등의 문제 - - 모두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3:16-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롬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행4:12) 그런데 교회는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 2.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마5:13-1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 -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을 교회에 두십니다.

-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6:2)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18: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에 소망을 두십니다. 세상이 심히 부패해도 교회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존재케 하는 보루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입니다.

### 3.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이다.

(요일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환경보다, 어떤 영적존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영적 존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대를 옮기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 4.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창회, 향우회, 각종 클럽모임, 특정한 종교적인 모임들 - - - .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모임들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종교모임의 봉사도 공덕을 쌓음으로 장차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적인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되, 내어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둘째,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모든 모임은 차별이 있습니다. 학력, 지역, 연령,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에서는 상전인 사람이 교회 오면 자기 집의 종에게 인도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 5.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이다.

오늘날 인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평화를 힘써 추구했음에도 지구촌에서는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함에도 청소년 범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발달로 생활은 풍족해졌으나 인간의 소외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의 변화 없이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구조와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